세계 고무 소비량 4.1% 증가

93년 아시아 6%·북미 4% 증가 … 유럽시장은 큰폭 감소

94년 세계 합성고무 소비량이 총 9400만톤을 기록, 전년대비 4%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ISRP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92년과 93년 세계경기의 침체로 최악의 소비실적을 기록했던 세계 합성고무 소비시장이 최근 세계경기의 회복 움직임속에서 수요시장이 활성화돼 98년에는 1100만톤 규모의 소비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합성고무 시장의 소비량은 902만7000톤에 그쳐 전년대비 6%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같은 세계 합성고무 시장의 소비량 감소는 중앙유럽의 13%, 일부 선진국에서 37% 감소, 서유럽이 5.3%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경제개발계획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 후발개도국들과 북미시장에서는 6%와 4%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2.2%, 1.8%의 전반적인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전체 합성고무 소비량의 2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SBR은 3.3%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화성 SBR의 94년 소비량은 268만5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오는 98년에는 308만4000톤 규모의 소비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카르복실레이티트 SBR은 올해 144만5000톤의 소비량에서 98년에는 169만1000톤의 소비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 합성고무 시장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폴리부타디엔의 소비량은 145만6000톤의 소비량에서 한해 평균 4.3%의 성장률을 기록, 오는 98년에는 169만6000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에틸렌프로필렌 고무는 올해 61만3000톤의 소비량이 98년에는 71만1000톤으로, TPEs는 76만8000톤에서 98년에 103만1000톤의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4/11>